

휴대폰 해킹 연예인 피해자 8명

BTS 기존 콘서트, 온라인으로

코로나19로 지친 팬들 위해 '방방콘' 18~19일 유튜브로 무료 공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8명 협박... 5명, 총 6억1000만원 보내
피의자들, 피해자에게 받은 돈 세탁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 해

배우 주진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에 빠진 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협박을 받은 연예인은 총 8명이며, 이 중 5명이 총 6억 원대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12일 유명인 휴대전화 해킹·협박 사건 관련 피의자 김모(30)와 박모(40)씨를 공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같은달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약 3개월간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연예인 5명이 총 6억1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조사에서 중국의 공범을 지목하며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국내 추가 공범 가능성과 함께 중국에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한 주범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공범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유력 용의자가 나왔다"며 "중국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했다. 김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몸캠피싱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동일한 중국 일당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을 유도, 피해자로부터 갈취

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김모(34)씨와 문모(39)씨도 지난달 12일 검거해 김씨 등과 같은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세탁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품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해킹 수법을 확인하기 위한 삼성·애플의 기술협조를 받아 추적 등도 진행 중이다. 한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5·구속 송치)이 이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주빈은 지난 1월 박사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간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조주빈 범행과)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그들 '방방소년단'(BT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친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안방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에서 즐기는 방방소년단 콘서트'(BTS ONLINE CONCERT WEEKEND·방방콘)다. 지난 10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방콘'은 오는 18일과 19일 각각 낮 12시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 '방방 TV(BANGTANTV)'에서 볼 수 있다. 이틀간 총 8부로 구성해 방방소년단의 지난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을 무료로 공개한다. 첫 날인 18일에는 '2015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 '2016 BTS LIVE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 에필로그', 'BTS 2014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II 더 레드 블릿' 등의 콘서트와 2016년 열린 팬미팅 'BTS 3RD 마스터 아미집+'가 차례로 이어진다. 19일에는 '2017 BTS 라이브 트릴로지 III 더 킹스 투어 인 서울', '2017 트릴로지 에피소드 III 더 킹스 투어 더 파이널', '러브 유어 셀프 서울' 콘서트와 2018년 열린 팬미팅 'BTS 4TH 마스터 - 해피 뉴 이어' 등으로 구성했다. 빅히트는 "방방콘"을 시청하는 팬들이 실감



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응원봉(아미봉)을 연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방방콘'을 감상 시 위버스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응원봉을 연동하면, 응원봉의 색깔이 곡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는 등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방방소년단은 지난달 말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기획된 미국 CBS 인기 심야 토크쇼 '홈페스트: 제임스 코든스 레이트 레이트 쇼 스페셜(HOMEFEST: JAMES CORDEN'S LATE LATE SHOW SPECIAL)'에 한국 대표로 등장, 홈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뉴시스

무술의 귀재 '엽문' 1~3편 '특별상영' 4편 '더 파이널' 관심 보답 위해 CGV, 15일부터 5일동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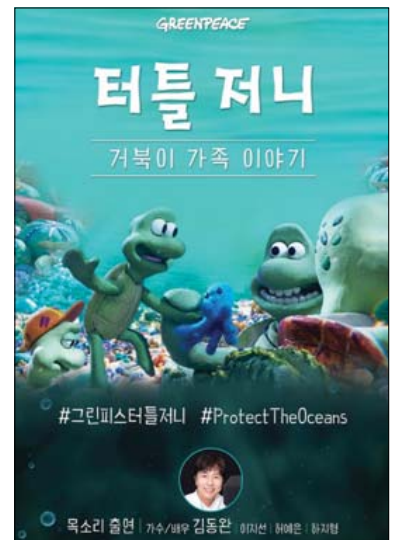


CGV가 영화 '엽문' 시리즈의 특별 상영전을 연다. 지난 10일 카다리엔티 측은 "'엽문4: 더 파이널'에 대한 관심이 보답하기 위해 11년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엽문' 시리즈 특별 상영전을 연다. 기획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며 "이는 결자단과 '엽문'을 떠나 보내기 아쉬운 '엽문' 세대의 계속된 요청이 맞물려 결정됐다"고 밝혔다. CGV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시리즈의 1~3편을 모두 상영한다. 관객은 1대 1 액션, 원탁 위 액션, 타이슨과의 대결, 엘리베이터 액션 등 각 시리즈가 탄생시킨 액션 명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엽문' 시리즈는 실존 인물인 엽문을 모티브로 한다. 멋진 액션신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 주연 배우 결자단의 호연으로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사랑을 받았다. 엽문은 영혼권을 대중화시킨 전설적인 인물로 이소룡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현재 개봉 중인 '엽문4: 더 파이널'은 엽

문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영화다. 결자단, 스콧 앳킨스, 진국근 등이 출연한다. 1편부터 함께 해온 엽위신 감독을 비롯해 결자단을 세상에 처음 소개했던 원화평 무술감독까지 전편의 제작팀이 함께했다. 지난 1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CGV 아트하우스 주최로 열리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CGV 용산아이파크몰,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CGV서면에서 진행된다.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뉴시스

김동완, 그린피스에 재능 기부... 90초 영상 내레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터틀 저니' 김동완이 바다 보호를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목소리를 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이날 공개되는 애니메이션 '터틀 저니: 거북이 가족 이야기'의 목소리 연기에 배우 김동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터틀 저니'는 세계적인 클레이 애니메이션(찰흙 등으로 인형을 만들어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아드만 스튜디오가 그린피스와 함께 제작한 90초짜리 초단편 영화다. 바다 보호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김동완은 극 중 내레이션과 주인공인 '아빠 거북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김동완은 "'터틀 저니'를 통해 오랜 꿈이었던 성우에 도전하게 돼 기쁘다"며 "위기에 처한 거북이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바다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생물 다양성 보존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바다 보호' 캠페인을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제 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바다의 30%를 남획·해저 개발 등의 인간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터틀 저니'는 무분별하



게 파괴되는 바닷속 생태계를 대표적인 바다 동물인 거북이 가족의 시점에서 보여준다. 석유 시추, 오염, 그리고 바다 밑바닥까지 짝살이해가는 저인망 어업 등 인간의 욕심으로 점점 살아갈 곳을 잃어가는 거북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바다가 처한 위험과 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고 영화를 설명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